(다)

정보 통신 기술 사회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대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보 통신 기술 범죄의 여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 사회는 빠른 속도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만큼 통제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모습도 같이 갖고 있다. 2009년 7월 '디도스(DDoS)'가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로 인해 정부나 은행의 주요 사이트들이 마비되었고, 미국 국방성의 전산망도 외부와 차단되었다. 디도스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작동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해커가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컴퓨터에 분산시키고, 해당 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많은 분량의 패킷(데이터)을 동시에 전송시켜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 또는 시스템의 마비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이다. 즉, 시스템의 과부하로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컴퓨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가 이러한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디도스 사례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위험이 파급되는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특정한 정부 기관이나 보안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개별 컴퓨터 이용자들이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계적인 위기를 일으키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라)

아직까지 지구 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총 수나 종류를 모두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육지의 큰 생물들은 대부분 밝혀졌으나 곤충, 균류, 세균 및 현미경적 크기의 다른 생물들 수백만 종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과학자들은 지구 상의 생물 종 수가 약 1천만 종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무수한 생물 종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생물 종들 간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활용하면 종들 사이의 유연관계를 알 수 있을까?

생물들의 다양성은 엄청나지만, 알려진 모든 종들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있다. 모든 생물들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을 기본 물질로 하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동일한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생물 종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서 계통을 세워 보면 모든 생물들은 약 35억 년 전 지구 상에 생겨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공통 조상은 지구 상의 생명의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따른 생물 종과 집단 사이의 계속적인 갈래는 생명의 가지치기에 비유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생물들은 기본적 동일성과 상호 관계에 따라 생물 계통수에 배열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생물들은 세 개의 큰 무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두 개가 원핵생물이며, 다른 하나가 진핵생물이다. 원핵생물에는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남세균이나 대장균과 같은 세균, 황세균과 같이 세균과는 여러 면에서 특성이 다르며 화산 지대와 같이 주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세균이 있다. 진핵생물은 단세포 생물(아메바, 짚신벌레 등)과 세 가지 주요 다세포 생물군인 식물, 균류, 동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처럼 대상을 종류로 아우르면 우리의 생각이 보다 명확해진다. 대상이 속한 종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대상이 속하지 않은 다른 종류와 구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의 성격도 한결 구체화되며, 상위에 속하는 것과 하위에 속하는 것이 구분되어 체계가 드러나게 된다.

(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기보다는 언어에 반영된 주관 세계이다. 언어와 같은 상징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분절하고 범주화하여 인식하므로 우리가 객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일곱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색깔을 분류하는 말이 일곱 가지이기 때문이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색, 예컨대 녹색과 청색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경계선은 아주 녹색도 아주 청색도 아니지만 그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런 모호한 색깔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어중간한 색깔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베리아의 밧사(Bassa)어에서는 무지개 색을 오직 두 가지로만 구별하지만, 프리즘을 통과해 나타나는 색은 수십, 수백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어에서도 초록색, 청색, 남색을 모두 '푸르다'고 한다. '푸른 숲, 푸른 하늘, 푸른 바다' 등의 표현이 그것을 말해 준다. 우리 어린이들이 흔히 이 세 가지 색을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색인데도 한 가지 단어를 쓰기 때문이다.

(바)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왔다. 대추장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내 왔다. 그가 답례로 우리의 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그로서는 친절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 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紅人)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 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온 것은 곧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을 달라는 것과 같다. 대추장은 우리만 따로 편히 살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안을 잘 고려해 보겠지만, 우리에게 이 땅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이 땅이 거룩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속에 비친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목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 준다. 카누를 날라 주고 자식들을 길러 준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팔게 되면 저 강들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하듯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 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사)

〈신문 광고〉



〈시〉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귀가 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829–1551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순혜'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눈다

(아)

일반적으로 시를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 속에 특별한 말로 굉장한 무엇인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일상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지 특별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시의 언어는 바로 일상의 언어로부터 출발한다.

문학은 경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고 재창조한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신문 기사나 보고서, 실록 등과 같은 기록물들과 다르다. 문학은 일상에 갇혀 있는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여 경험 세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면하게 한다. 문학 작품의 비판적 · 창조적 재구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먼저 내용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시어나 소재, 주제를 바꾸면 새로운 작품이 된다. 형식을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가령, 소설을 시로 재구성하거나, 소설을 희곡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때는 재구성할 형식이 가진 특징을 잘 고려해야 한다. 형식을 재구성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문 스크랩, 극장의 포스터, 광고 메시지, 금전 출납부, 동상의 받침대에 새긴 문안 따위를 작품 속에 옮겨 재배치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재구성된 재료들은 문학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흔히 내용만 따라 읽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학 작품에는 작가가 공들여 배치한 여러 가지 미적인 형식이 감춰져 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독자는 작품의 내용 속에 감추어진 섬세한 미적인 형식을 발견해 냄으로써 보다 높은 미적 성취를 얻게 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나누다(쪼개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나눔(쪼갬)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고,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사)의 왼쪽은 신문 광고이고 오른쪽은 시 작품이다. 이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과 그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낸 효과를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00~420자]**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문제

인문사회계열

예시 답안 / 채점 기준

1.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1.1 평가 목표

인문계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종합적 ·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논리적 · 추론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의 논술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논술 제시문을 모두 선별하되, 『문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생활과 윤리』, 『정보』, 『사회』, 『과학』 등의 교과서에서도 제시문을 발췌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올해의 논술에서는, 일자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세계도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데 착안하여, 다양한 나눔의 방식을 보여주는 제시문들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이르게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나누다/쪼개다'라는 하나의 주제가 다양한 '나눔/쪼갬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변별하고 각각의 방식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기술하는 논리적 능력과 이러한 나눔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제시문에 근거해 추론하는 비판적 능력, 그리고 특정한 관점에 근거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철학적 자세를 통합적으로 논술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측정한다. 또한 제시문을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통합적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인문학적 · 사회과학적 · 자연과학적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1.2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에서 제시된 네 개의 제시문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나눔과 그 효과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 주제로 묶일 수 있다. 이 문제는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라는 측면에서 네 개의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 내고, 그것을 분별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쪼갬)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각각의 나눔의 방식이 일으키는 효과를 변별해 기술해야 한다. 1) 기능을 모듈로 분할하는 방식을 통해 부분의 대체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하는 효과(제시문 가), 우연에 의해 부여받은 선천적 재능이나 물려받은 부와 지위 등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을 통해 공동선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효과(제시문 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격하는 분산의 방식을 통해 관리와 통제를 넘어서 위력을 배가하는 효과(제시문 다), 대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묶는 분류의 방식을 통해 대상을 구체화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하며 체계화하는 효과(제시문 라)로 요약될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문제 2] 이 문제는 제시문 (라)와 (마)의 독해를 통해 '분류'라는 나눔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부분이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부분이라는 심층 생태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지식보다는 다양한 제시문 간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통합적 사고력'과 지식의 단순 암기보다는 습득된 지식을 종합 분석하여 극복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술하는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가 분절해 놓은 인식의 틀을 통해 주관적으로 세계를 파악할 뿐 객관 세계를 보지 못함을 언급한 제시문 (마)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분류의 방식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언급해야 한다. 연속선 상에 놓인 대상들을 인위적으로 나눔으로써 인식을 단순화하고, 각각의 범주들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인식하지 못하며 분류 체계라는 주관적 틀에 갇혀서 객관 세계의 실체를 보지 못할 가능성을 한계로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문 (바)의 세계관을 토대로 기술해야 한다. 자연과 인간과 만물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생명의 그물이라는 세계관에 따르면 인식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분류의 방식이 한편으로는 분절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분절된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도 사실은 연속적이고 수평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하나의 역동적 세계를 이룸을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3] 이 문제는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의 방식과 효과를 설명하는 제시문 (아)에 근거해, 신문의 심인(尋人) 광고를 재배치하고 변형해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시 작품을 설명해 보게 함으로써 다양한 글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먼저 (사)의 시 작품이 일상의 언어인 신문의 심인 광고를 소재로 활용하여 시 속에 재배치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창작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이 시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심인 광고들을 나란히 배열하는 창조적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이들 사이에 내적 연관성을 만들어 내고, 마지막 연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본래 신문 광고의 의미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했음을 파악해야 한다. 실종된 사람을 찾는 절박한 메시지의 심인 광고들은 시인에 의해 창조적으로 재구성된 시 작품에서 화자의 일상과 나란히 놓이면서, 일상에 갇혀 있던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 경험 세계를 일상 바깥으로 확장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함을 분석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2. 제시문 출전과 해설

제시문 (가) _「자판기와 함수 이야기」, 『정보』, 삼양미디어, 2012.

제시문 (나) _「전문직 ·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2011.

제시문 (다) _「해킹(침해 유형)」, 『정보』, 삼양미디어, 2011.
「21세기의 정보 흑사병」, 『사회』, 천재교육, 2010.

제시문 (라) _「생물의 종들은 유사성에 따라 계통을 세울 수 있을까?」, 『과학』, 금성출판사, 2011.

제시문 (마) _「언어와 사고 · 사회 · 문화」, 『독서와 문법 Ⅰ』, 비상교육, 2011.

제시문 (바) _「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 『문학 Ⅱ』, 창비, 2011.

제시문 (사) _「심인」, 『문학 Ⅰ』, 지학사, 2011.

제시문 (아) _「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문학 Ⅰ』, 해냄에듀, 2011.
「문학 작품의 비판적 · 창조적 재구성」, 「상상력과 감수성」, 『문학 Ⅰ』, 천재문화, 2011.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정보』(삼양미디어) 교과서에 실린 「자판기와 함수 이야기」라는 글의 일부이다. 이 글은 자판기를 기능적 모듈화로 분할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자판기를 모듈화하면 기능 개선을 위해서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부분만 교체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관리가 유리하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분할이라는 나눔의 방식으로 효율성과 편리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 요지이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천재교육)에 실린 「전문직 ·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우리 사회의 공인들은 선천적 재능을 부여받고 사회적 ·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위와 부를 가진 자들로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재분배함으로써 공동선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우연적이고 운명적으로 자신이 갖게 된 것들을 재분배하는 나눔의 방식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선을 실현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 읽어야 할 요지이다.

제시문 (다)는

디도스(DDoS)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고등학교 『정보』(삼양미디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사회』(천재교육)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재구성한 글이다. 이 글은 정보 통신 기술 사회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서비스 공격 도구들을 분산하여 일제히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관리와 통제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는 디도스 공격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분산의 방식을 통해 관리와 통제를 넘어서 그 위력을 배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이 글에서 읽어야 할 요지이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과학』(금성출판사) 교과서에 실린 「생물의 종들은 유사성에 따라 계통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글을 중심으로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구 상의 수많은 생물 종들을 기본 물질과 세포 등의 단위로 분석한 후 유사성을 기반으로 분류해 계통을 세우면 공통 조상을 기점으로 하는 계통수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다른 종류와의 구분을 통해 대상이 속한 종류의 속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체계를 드러내는 효과를 갖는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분류라는 나눔의 방식과 분류가 가져오는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이 글에서 읽어야 할 요지이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Ⅰ』(비상교육) 교과서에 실린 「언어와 사고 · 사회 · 문화」의 일부를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재구성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무지개라는 동일한 대상을 보면서도 각 언어에서 무지개의 색깔을 지칭하는 어휘의 수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구분한다는 점이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록색, 청색, 남색을 혼동하게 된다는 예시를 들어, 우리가 보고 지각하는 세계는 실체 그대로의 객관 세계가 아니라 언어라는 틀을 통해 인식된 주관적 세계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분류의 과정에서 봉착하게 되는 경계의 인위성, 분류로 인해 놓칠 수 있는 다양한 차이, 그 결과 생길 수 있는 인식의 주관성 등을 포착해 내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요지이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 Ⅱ』(창비) 교과서에 실린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라는 글의 일부이다. 이 글은 미국 대통령이 백인 대표자를 보내 땅을 팔 것을 제안하자 시애틀 추장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연설한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만물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생명의 그물이라는 세계관을 보여 주는 이 글에서는 부분과 전체가 서로 수평적이고 역동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세계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황지우의 시 「심인」의 전문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Ⅰ』(지학사)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심인(尋人)'이라는 제목처럼 서로 다른 사연이 담긴 신문 광고의 조각들과 화자의 일상 세계를 엮어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새로운 형식의 시이다. 총 4연으로 구성된 이 시에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메시지의 심인 광고와 화장실에서의 배설 행위처럼 화자가 날마다 심상하게 접하는 일상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가족 갈등과 회한, 시대적 상황들을 상상하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 현실의 의미와 가치들을 성찰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제시문 (아)는

시 창작 방식에 관한 고등학교 『문학 Ⅰ』(해냄에듀)의 글 일부와, 문학 작품의 재구성 방식 및 상상력과 감수성에 관한 고등학교 『문학 Ⅰ』(천재문화)의 글 일부를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일상의 언어에서 출발한 시가 창조적 재구성을 통해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경험 세계를 확장시키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요지이다.

3. 예시 답안

[문제 1] (가), (나), (다), (라)는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나눔과 그 효과를 보여 준다. (가)는 자판기의 사례처럼 기능을 모듈로 분할하는 방식을 통해 부분의 대체 가능성을 높여 줌으로써 비용 절감, 손쉬운 관리 등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하는 효과를 보여 준다. (나)에서는 우연에 의해 부여받은 선천적 재능이나 물려받은 지위 등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나눔의 방식을 통해, 공동선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나누어 일제히 공격하는 (다)의 디도스 사례는, 분산의 방식이 그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배가시켜 관리와 통제를 어렵게 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라)는 생물 계통수의 사례를 통해, 대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묶는 분류의 방식이 대상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개체들 간의 숨겨진 상호 관계를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나눔은 분할, 분배, 분산, 분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경제성, 사회정의 구현, 영향력의 확대, 체계화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558자)

[문제 2] 제시문 (마)는 색깔 인식에 관한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객관 세계가 아니라 언어가 분절해 놓은 인식의 틀을 통해 보는 주관 세계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보면, 유사성 및 공통점을 통해 경계를 분절하고 구획하는 분류의 방식은, 연속선 상에 놓인 대상들을 인위적으로 나눔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단순화하고 각각의 범주들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분류 체계라는 주관적 틀에 갇혀서 객관 세계의 실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바)에 나타난 세계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에도 부분이 있고 부분에도 전체가 있다는 이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과 인간과 만물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생명의 그물이다. 따라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제시문 (라)의 분류가 한편으로는 분절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도 사실은 연속적이고 수평적으로 맺어져 있는 하나의 역동적 세계임을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59자)

[문제 3] 제시문 (사)의 시 작품은 일상의 언어가 시로 창작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우선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신문의 심인(尋人) 광고 문구를 가져와, 시행과 연으로 나누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배치함으로써 일상의 언어를 시로 변형하는 형식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광고와는 무관해 보이는 화자의 일상 경험을 마지막 연에 추가하여 한 편의 시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창조적 재구성은 신문 광고 문구의 의미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한다. 실종된 사람을 찾는 절박한 메시지의 심인 광고들과 화자의 일상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일상의 언어인 광고 문구를 낯설게 만들고, 독자의 경험을 일상 바깥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광고에 주어진 정보들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게 한다. (418자)

4.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 자	1점 감점
±26 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37점): 8~37점

(가) 기능을 모듈화하고 **분할**하는 방식의 나눔을 통해 **대체 가능성, 경제성, 효율성, 편리성** 등을 증대한다.

(나) 우연이나 운에 의해 **배분**받은 능력, 재능, 사회적 지위 등을 **재분배**를 통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다) 데이터를 나누어 받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일제히 공격하는 디도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산**이라는 나눔의 방식이 **영향력을 증폭**시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 대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묶는 **분류**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개체들 간의 **숨겨진 상호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

- **네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모두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30~37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22~29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5~21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8~14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의 특징을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3점): 0~3점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1점),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최대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논지의 차이점 파악 (37점): 8~37점	4개를 정확히 제시한 경우	30~37점
		3개를 제시한 경우	22~29점
		2개를 제시한 경우	15~21점
		1개를 제시한 경우	8~14점
	② 논리적 구성 (3점): 0~3점	서론 – 본론 – 결론으로 구성	1점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충실	2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 자	1점 감점
±26 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한계를 적절히 기술하였는지를 평가한다(20점): 4~20점 부여

제시문 (마)의 논지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객관 세계가 아니라 언어가 분절해 놓은 인식의 틀을 통해 보는 주관 세계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마)의 논지를 활용한 (라)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i) 대상의 유사성 및 공통점을 통해 경계를 **분절하고 구획**하는 분류의 방식은 연속선상에 놓인 대상을 **인위적으로 나눔**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단순화**한다.

ii) 분류의 방식은 각각의 범주들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iii) 분류 체계는 주관적 틀에 갇혀서 **객관 세계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 제시문 (마)에 나타난 논지로 분절성과 주관적 인식 모두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라)의 한계와 적절히 연결한 경우, 16~20점 부여
- ⊙ 제시문 (마)의 논지는 파악하였으나 (라)의 한계와의 연결이 미흡한 경우, 10~15점 부여
- ⊙ 제시문 (마)에 나타난 논지만 파악한 경우, 4~9점 부여

2)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는지를 평가한다(20점): 4~20점 부여

i) (바)의 논지는 생태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자연과 인간과 만물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생명의 그물이라는 점에 있다.

ii) 분류의 체계가 분절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도 **연속적이고 수평적**으로 맺어져 있는 하나의 **역동적 세계**임을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제시문 (바)의 논지를 파악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를 통합적으로 연결한 경우, 16~20점

⊙ 제시문 (바)의 논지를 파악하였으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지 못한 경우, 10~15점

⊙ 제시문 (바)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4~9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최대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라)의 한계를 제시했는지 평가(20점): 4~20점	(마)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라)의 한계와의 연결이 우수한 경우	16~20점
		(마)의 논지는 파악하였으나 (라)의 한계와의 연결이 미흡한 경우	10~15점
		(마)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4~9점
	② (바)의 논지를 활용하여 극복해야 할 자세를 제시했는지 평가(20점): 4~20점	(바)의 논지를 파악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를 통합적으로 기술한 경우	16~20점
		(바)의 논지를 파악하였으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지 못한 경우	10~15점
		제시문 (바)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4~9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 자	1점 감점
±26 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에 근거해 (사)의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점): 2~10점

제시문 (아)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는 (사)의 시 창작 방식: (사)의 시 작품은 **일상의 언어**인 신문의 심인(尋人) 광고를 소재로 활용하여 시 속에 **재배치**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창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신문 광고 문구를 시행과 연으로 나누어 **재구성**하고 **변형**하는 방식으로 **형식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광고와는 무관해 보이는 화자의 일상 경험을 마지막 연에 **추가**하여 한 편의 시로 재구성하였다.

- ⊙ 제시문 (아)에 근거해 (사)의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을 위와 같이 적절히 설명한 경우, 6~10점 부여
- ⊙ 제시문 (아)와 (사)의 시를 서로 관련 짓지 못하고 따로 설명한 경우, 2~5점

2) 제시문 (아)에 근거해서 (사)의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평가한다(10점): 2~10점

제시문 (아)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는 시 창작 방식의 효과: 시를 통한 **창조적 재구성**은 신문 광고의 의미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한다. 심인 광고들과 화자의 일상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일상의 언어인 광고 문구를 낯설게 만들고, 독자의 경험을 **일상 바깥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광고에 주어진 정보들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게 한다.

- ⊙ 제시문 (아)에 근거해 (사)의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내는 효과를 위와 같이 적절히 설명한 경우, 6~10점 부여
- ⊙ 제시문 (아)와 (사)의 시를 서로 관련 짓지 못하고 따로 설명한 경우, 2~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최대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아)에 근거해 (사)의 시 창작 방식 설명(10점): 2~10점	제시문 (아)에 근거해 (사)의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을 적절히 설명한 경우	6~10점
		제시문 (아)와 (사)의 시를 서로 관련 짓지 못하고 따로 설명한 경우	2~5점
	② 제시문 (아)에 근거해 (사)의 창작 방식의 효과 설명(10점): 2~10점	제시문 (아)에 근거해 (사)의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내는 효과를 적절히 설명한 경우	6~10점
		제시문 (아)와 (사)의 시를 서로 관련 짓지 못하고 따로 설명한 경우	2~5점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문제

경영경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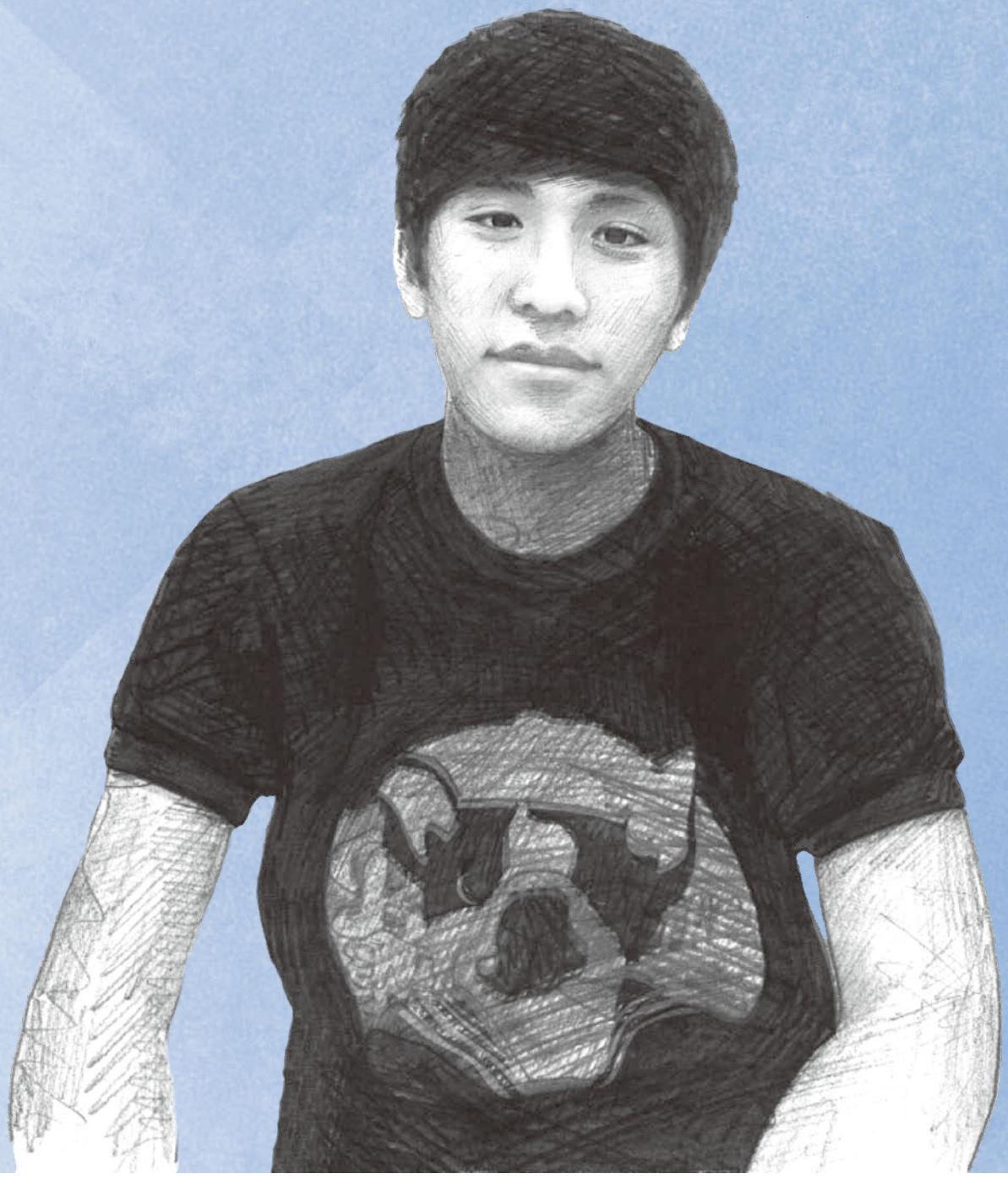


interview 02

‘선배들이 말하는 중앙대학교 논술’

광고홍보학과 15학번

박찬민



논술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작년에 저는 논술공부보다는 수능 공부를 주로 하였습니다. 재수를 하였기에 논술을 따로 공부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고 2, 3학년 방학기간에만 학원을 잠깐 다니긴 했었지만 오랫동안 논술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에 수능이 끝난 후 논술고사를 치르기까지의 시간이 다른 대학보다 길기에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매일 했는데, 유형이 정해져 있기에 기출문제 풀이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풀이를 계속 하면서 자신에게 편한 문제 접근법과 시간안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글을 읽는 속도가 남들보다 느린 편이어서 다소 천천히 읽더라도 한 번에 확실히 글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수능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 비문학이나 사회탐구에서 배운 내용이 지문으로 나올 경우 읽는데 훨씬 수월하여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논술가이드북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논술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대학마다 나름의 유형이 정해져있기에 비슷한 형식의 문제들을 여러 개 풀어보는 것은 확실히 실전에 가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이드북을 통해 유형을 익히게 되면 처음 보는 글이더라도 문제를 접근하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북에 있는 예시답안과 자신이 쓴 글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 못했고 어느 부분을 잘 못했는지 확실히 파악하여 다음에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드북에 있는 문제들을 혼자 풀 때도 실전인 것처럼 시간을 재고 집중하여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시답안과 비교할 때 이 정도면 대충 비슷한데 하고 느슨하게 평가하기가 쉬운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여 자신이 못하는 점을 확실히 알고 가야 합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외대와 중앙대 2개 대학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중앙대 문제는 풀면서 곧잘 푼다고 생각했지만 외대 기출문제 풀이는 정말로 못했습니다. 대학별로 문제 유형은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풀이를 잘 못한다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 내용 요약이나 비판 등 자신이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유형의 문제를 요구하는 대학이 무엇인지 찾으셔서 나중에는 그러한 대학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공부를 하면서 수능공부를 소홀히 하지는 마세요. 논술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을뿐더러 지나치게 논술만 공부하는 것은 대입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적절히 배분하여 소중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

저는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고3때 저는 진짜 공부를 많이 안했는데요, '재수 많이들 하는데 나도 정 안되면 1년 더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3을 보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불안해지고 공부가 집중도 잘 안되고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할 생각만 하세요. 재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시간은 진짜 쪼개어 쓰면 쓸수록 엄청나게 늡니다. 정말로 지금부터 남은 시간 결코 짧은 시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짧다고 생각하면 짧을 수 있지만 정말로 열심히 하시면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능이든 논술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진짜 그 성적대로 수능 쭉 가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들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내년에 캠퍼스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